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

시민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설 연휴에만 27억원 풀려 모바일 상품권 내일까지 신청... 지류형은 10~28일 신청·지급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불황의 늪에 빠진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을 겨냥한 지원금은 전남지역 시 단 위 지자체 중 나주시가 유일하게 지급했다. 지난달 24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만 시민 2만 7000여명 이상이 27억원을 웃도는 지원금을 받았다. 정책분으로 발행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나주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신청은 7일까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착)'을 설치 후 시청 누리집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팝업창으로 하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앱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견인 효과 외에도 신청을 위한 앱 신규 가입자만 1만3000여명 늘어나면서 지류형 상품권 발행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지류형 상품권 신청·지급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진행한다.

나주시는 신청인이 대거 몰리는 혼잡한 상황 예방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0·5인 사람은 2월 10일,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 함께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190억원 규모의 35개 사업을 새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쫓겨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한 내 상품권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설 명절에 앞서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반갑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장흥군 4944억 규모 도로 확장 2건 국토부 예타 대상 선정

대덕 신리~순지·안양 기산~사촌

장흥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2건의 도로 사업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총사업비 4944억원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민들의 편의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토·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량,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종합 평가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23호선 대덕 신리~장흥 순지 24.8km 구간(4274억 원) 4차로 확장 사업과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8.6km 구간(670억 원) 4차로 확장사업이다. 국도23호선 장흥 순지~대덕 신리 구간은 회진항(마량항)으로 유입되는 섬지역 주민 및 물류 수송의 핵심 도로다.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구간은 급커브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4차선 확장으로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과



국토부 예타 대상에 선정된 장흥군 도로 확장 2개 공사 구간.

한강문화길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 3월 신청한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했다"며, "남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농수산물 수출 500억 달성 총력전

수출 증대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장흥군은 올해 지역 농수산물 수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장흥군은 체계적인 수출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산업 발전 3개년(2025-2027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제공한 수출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장흥군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39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총 849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무산김이 46.4%로 가장 많고 오리털, 해조류, 표고버섯, 쌀 등 37개 품목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대만 등 26개 국가로 수출됐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 판촉행사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수출 국가와 품목이 매년 늘고 있다. 장흥군은 해외 경쟁력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능력과 기업을 늘리고,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먹거리통합센터 21일까지 설계공모

농산물가공센터 인근에 건립

함평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21일까지 진행한다. 먹거리를 공적으로 조달하는 통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공모 참가 등록은 6일까지다. 등록된 참가자에 한해 21일까지 접수를 한다. 이번 공모는 설계자의 기술 제안 또는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다. 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명품 속(떡) 가공센터 인근 균유지를 활용해 지상 2층, 연면적 132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물류 시설, 교육장, 마케팅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공공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과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농가 조직화를 통한 연중 기획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담근 양파김치.

생산 체계 구축 등 푸드플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군민,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 순환도시 함평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0만원으로 상향

군비로 10만원씩 추가 지급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를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중 20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업인에 현금처럼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다. 음식점, 여행, 스포츠, 문화 등 각종 매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잘 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담양군은 군비 10만 원을 추가한 30만원

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도 75세에서 80세로 확대했다. 전남도 행복바우처는 본인 명의 농업 채움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고, 담양군의 추가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농업정책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농업인 우대정책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과 보편적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계약 원가 심사 제도 도입... 지난해 11억원 절감

378건 1127억원 계약심사 진행

나주시는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등에 앞서 원가가 적정한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공사는 1억원, 종합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378건에 사업 규모 1127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 공사는 6억3000만원, 용역 4억3000만원, 물품 1억2000만원 등 총 11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직원 직무교육과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올바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둔 직무 역량을 강화했다. 단순한 감액 심사가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 검토와 부실시공 예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추진했다. 대형공사장과 설계변경 대상 사업장은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적합



나주시 관계자들이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공사 품질을 향상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 부서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사업 추

진 전 불필요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심사를 진행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강진품에 온 군민'에 가입하면 강진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 관람료 면제 및 할인되고 가입 시 5000마일리지가 제공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성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장성군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생활·취업·소상공인 지원 등과 관련된 예로서사항이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기업투자자를 가르는 규제까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s717960@korea.kr)로 전송하거나 장성군 기획실 법무팀계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생활인구 늘리자"... '강진품에 온 군민' 오픈

출향인·관광객 등에 각종 혜택

강진군이 5일 '강진품에 온 군민' 플랫폼을 정식 오픈했다. 플랫폼은 강진군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 관광객, 전지훈련 선수단, 강진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강진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강진군은 이를 통해 군민과 강진을 방문하는 이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사전가입 이벤트에서는 1주일 만에 4000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1월 동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강진을 방문한 51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진품에 온 군민'에 가입하면 강진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 관람료 면제 및 할인되고 가입 시 5000마일리지가 제공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화순군 25일까지 올 재배 콩·팥 종자 신청

화순군이 올해 재배할 콩·팥 종자에 대해 마을 대표(이장)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 이번 신청에는 콩, 팥 종자는 보급종으로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에서 보증하는 종자이며,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고 생산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올해 화순군에 배정된 콩, 팥 종자량은 총 10톤 정도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였으며, 품종은 일반콩 2품종(선종, 대찬), 나물콩 1품종(풍산나물), 팥 1품종(아라리) 등 총 4개 품종이다.

공급 단위는 5kg 포대로 포대당 가격은 일반콩과 나물콩은 2만7790원, 팥은 5만660원이다. 신청 시 콩은 소독과 미소독 종자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단, 대찬품종은 전량 소독), 팥은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등록된 소독 약제가 없이 미소독 종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량이 많을 시 군 배정량 내에서 감량 조정 후 농가별 수량이 최종 확정되며, 지역농협에서 4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종자 대금을 납부한 후 공급받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